

## 결 정

2018 - 3085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2.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3. 전자신문 발행인 이 선 기
4. 남도일보 발행인 김 성 의
5.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6. 매경닷컴 발행인 진 성 기
7. 국제신문 발행인 송 문 석
8.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9. 서울경제 발행인 이 중 환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18년 2월 28일자(캡처시각) 「조민기 성추행」 질문에 아내가 보인 반응」 제목의 사진, 3월 4일자 「조민기 미투 고발 그 이후, 딸과 아내의 다른 선택」 기사의 사진,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3월 5일자 「조민기 성추행 논란 그 후...딸 조윤경-아내 김선진의 다른 선택」 기사의 사진, 전자신문(etnews.com) 2월 28일자 「조민기 음란 카톡, 딸에겐 엄격하더니...학생에겐 성추행했나?」 기사의 사진, 남도일보(namdonews.com) 2월 28일자 「조민기, '음란' 카톡 보내면서 '딸'에게만 엄격?」 기사의 사진, 아시아경제(asiae.co.kr) 2월 21일자 「조민기, 과거 딸에게 "이것도 일종의 성추행"...'아빠를 부탁해' 재조명」 기사와 사진, 매경닷컴(mk.co.kr) 2월 21일자 「'성추행 논란 조민기' 조윤경, 과거 다정한 화보...진실은?」 기사의 사진, 국제신문(kookje.co.kr) 2월 20일자 「조민기 학생 성추행 추문에 딸과 출연한 '아빠를 부탁해' 회자..."설마, 딸 뺄 인데"」 기사의 사진, 서울신문(seoul.co.kr) 2월 20일자 「'조민기 성추행 의혹' 딸 조윤경 등 가족들 피해...네티즌이 SNS에 남긴 글」 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2월 20일자 「조민기 화기에 애 가족사진 '딸이랑 판박이'...교수직 사임 이유가? "몇년간 여학생 성추행" 논란↑」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경고'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 등 9개 신문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캡처시각 18. 2. 28. 15:13>

(국민일보1)= 『조민기 성추행 의혹' 질문에 아내가 보인 반응... “그럴 리가요”

입력: 2018-02-21 14:10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조민기씨의 가족들이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조민기씨는 지난해 SBS 예능프로그램 ‘아빠를 부탁해’에 딸인 조운정양과 함께 출연해 부인 김모씨 등 가족을 공개했다.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20일 네티즌들은 메이크업아티스트 겸 교수 부인과 딸의 SNS 계정에 ‘진실’을 요구하는 댓글을 남겼다.

네티즌들은 부인과 딸의 인스타그램에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나” 등의 글을 올렸다. 부인 김씨는 이에 “그럴 리가요”라며 부인하는 답글을 남기기도 했다. 성추행 논란의 당사자인 조민기씨는 현재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모든 SNS 계정을 폐쇄한 상태다. 부인도 전날 “그럴리가요”라고 답글을 남긴 게시물을 삭제했다.

조민기씨는 20일 “제자를 성추행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이는 거꾸로 더 강한 반발과 비판에 부닥쳤다. 청주대 연극영화과 졸업생들은 그의 성추행을 폭로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며 ‘거짓 해명’이라고 주장했다.



조민기씨 소속사 월엔터테인먼트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배우 조민기에 대한 성추행 관련 증언에 대해 소속사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소속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확인을 넘어 더욱 명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민기는 앞으로 진행될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지 인턴기자』

<<http://news.kmb.co.kr/article/view.asp?arcid=0012146295&code=61121211&sid1=soc&cp=mv2>>

국민일보

나눔스퀘어 Light Extra Bold 추가!

02-26 13:45 편집

송승환, “제약했었지만... 폐회식에 ‘싸이’가 나오지 않은 까닭

HOT 서지현이 불붙인 ‘미투’ 한 달... 폭로된 면면과 실태

김유정, 갑상선 수술로 활동 중단... 차기작 제작진 “배우 건강 확인 먼저”

“지속하겠다” 성추행 고백한 배우 최일화

“하나님이 함께 할라신다” 금메달 이승훈 믿음의 질주

조민기 성추행 ‘질문’에 아내가 보인 반응

정재원에 기습 뽀뽀한 반 대우 쿨치가 나기

이방카, 김여정 비교에 “한국 자매와 비교 줄

“문대통령, 김영철 면담 때 ‘비핵화’ 얘기

‘스피드스케이팅 황제’ 이승훈이 밝힌 은퇴 후

키사가 보는 앞에서 20개의 ‘알’ 낳은 14살

컬링 감독 “이 상황에 메달?” 과거 인터뷰 재

오달수 “참담한 심정으로 삶을 되짚어 보는

국민일보 사이트 바로가기 ▶

<캡처시각 2. 26. 14:03>

※참고: 조민기 부인 방송 화면(국민일보가 보도한 사진 속의 의상과 같다)

조민기 아내 김선진, '졸혼수업'서 “남편과 싸우면 이혼기사 때”

발행일 : 2018-02-20 12:04:53

가+ 가



<사진=MBN 캡처>

<<http://www.rpm9.com/news/article.html?id=20180220090020>>

(국민일보2)= 『조민기 미투 고발 그 이후, 딸과 아내의 다른 선택

입력 : 2018-03-04 14:35



‘미투’ 고발 대상자의 가족들이 남모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성추행 해당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중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은 가족이라는 이름 탓에 무차별적인 비판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감내하고 있는 듯 보였다.

대학 교수와 배우 활동 시절 성추행을 벌였다는 고발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조민기의 가족들이 대표적이다. 조민기의 아내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대학 교수로 활동하는 김선진씨다. 뷰티샷의 대표이기도 한 김선진씨는 이미 알려진 유명 인사다.

조민기의 딸 조윤경씨도 과거 아버지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경력때문에 포털사이트에 인물 검색에 등록돼 있을 정도로 대중에게 익숙하다.

문제는 조민기를 둘러싼 미투 고발 이후에 대중의 비난의 화살이 애먼 가족들에게 돌려가고 있다는 점이다.

조민기 딸 조윤경씨는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해왔다. 최근까지 미국의 한 명문대 대학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직접 알렸다. 많은 네티즌들에게 축하 인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추문이 인터넷을 휩쓸자, 조윤경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닫았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173773&code=61181111>>

(스포츠서울)= 『조민기 성추행 논란 그 후...딸 조윤경-아내 김선진의 다른 선택  
입력 2018-03-05 08:16  
수정 2018-03-05 08:49



[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배우 조민기가 성추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딸 조윤경과 아내 김선진의 다른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민기의 아내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대학 교수로 활동하는 김선진 씨다. 뷰티샵의 대표이기도 한 김선진 씨는 이미 알려진 유명 인사다.

조민기의 딸 조윤경 씨도 과거 아버지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경력때문에 포털사이트에 인물 검색에 등록돼 있을 정도로 대중에게 익숙하다.』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608260#csidxad5432f1491124b836d4c562528adf9>>

(전자신문)= 『조민기 음란 카톡, 딸에겐 엄격하더니... 학생에겐 성추행했나?

발행일 : 2018.02.28

조민기 카톡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조민기 카톡 내용 뿐만 아니라 과거 방송에서 조민기가 본인의 딸에게 보인 이중적인 태도가 누리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조민기 카톡 내용을 단독 공개해 충격을 안겼다. 해당 매체가 공개한 조민기의 카톡 내용에는 입에 담기 힘든 음란한 내용이 상당수 담겨 있다.

조민기 카톡까지 그를 폭로하는 11번째 성추행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민기가 과거 방송에서 딸에게 애착을 보이는 장면이 회자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딸과 같은 또래의 여성들을 상대로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조민기는 과거 SBS '아빠를 부탁해'에 딸과 함께 예능에 출연한 바 있다. 해당 방송에서 그는 딸의 남자친구를 궁금해 하며, 스킨십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

조민기는 조윤경에게 남자친구를 언제 만났는지 물었고 조윤경은 "중국에서 처음 만났다"면서 "외모는 합격이지만 성격은 무뚝뚝했다"고 회상했다.

이에 조민기는 "여기서 남자친구와 나란히 앉아 손도 잡았냐. 뽀뽀도 했냐"고 집요하게 묻자 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조민기는 충격을 받은 듯 했다.(하략)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

<<http://www.etnews.com/20180228000231>>

(남도일보)= 『조민기, ‘음란’ 카톡 보내면서 ‘딸’에게만 엄격?

박희수 기자

승인 2018.02.28 13:47

조민기가 보낸 음란 카톡이 논란을 일킨 가운데, 그가 보여준 딸에 대한 애정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 매체는 28일 조민기가 한 여성에게 보낸 카톡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매체가 공개한 조민기의 카톡 내용에는 음란한 내용이 상당수 담겨 있다.



카톡을 통해 여성을 성추행하는 등 온갖 만행을 보여준 조민기는 딸의 연애에 있어선 강한 애착을 보여주며 더욱 여론의 분노를 자아냈다. 딸과 같은 또래의 여성들을 상대로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하락)』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4238>>

(아시아경제)= 『조민기, 과거 딸에게 "이것도 일종의 성추행"...'아빠를 부탁해' 재조명

최종수정 2018.02.21 10:15 기사입력 2018.02.21 08:48

[아시아경제 씨쓰루팀] 배우 조민기가 청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여학생들을 성추행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과거 그가 출연한 '아빠를 부탁해'가 재조명되고 있다.



배우 조민기와 딸 윤경. 사진=SBS '아빠를 부탁해' 캡처

2015년 7월12일 방영한 SBS '아빠를 부탁해'에서는 조민기가 딸 조윤경과 함께 수영복 가게에 들러 비키니 쇼핑을 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매장을 가득 메운 비키니를 본 조민기는 민망한 표정을 지으며 눈둘 곳을 찾지 못하면서도 딸의 비키니 쇼핑을 열심히 도왔다.

배우 조민기와 딸 윤경. 사진=SBS '아빠를 부탁해' 캡처

이후 딸이 장난을 치며 조민기 몸에 비키니를 대보자 조민기는 "일종의 성추행이라고 봐"라며 몹시 부끄러워했다.



(하략)』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22108381712563>>



(매경닷컴)= 『성추행 논란 조민기』 조윤경, 과거 다정한 화보…진실은?

기사입력 2018.02.21 08:37:20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조민기와 딸 조윤경의 과거 화보가 재주목 받고 있다.

과거 방송한 SBS '아빠를 부탁해'에서는 배우 조민기와 딸 조윤경이 화보 사진 촬영을 준비했다.

조민기와 조윤경은 화보 촬영장에서 직접 김선진의 도움을 받았다.



'아빠를 부탁해' 사진= '아빠를 부탁해' 캡처

배우 조민기의 아내이자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김선진은 딸 조윤경과 남편 조민기를 위해 직접 메이크업을 해주며 화보 촬영에 힘을 실었다.

이날 조민기의 딸 조윤경은 10kg 감량한 날씬한 모습으로 미모를 빛냈고 조민기는 딸 윤경과 함께하는 화보 촬영에 함박 웃음을 지었다.(하락)』

<<http://sports.mk.co.kr/view.php?year=2018&no=118668>>

(국제신문)= 『조민기 학생 성추행 추문에 딸과 출연한 '아빠를 부탁해' 회자..." 설마, 딸 뺄 인데"

이승륜 기자 thinkboy7@kookje.co.kr

입력 : 2018-02-20 16:47:27



학생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조민기가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딸과 다정한 시간을 보내던 모습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를 기억하는 누리꾼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설마, 딸 뺄 학생에게 그랬을까”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일 문화계 소식통에 따르면 조민기는 2015년 예능프로그램 ‘아빠를 부탁해’에 딸과 출연해 다정다감한 아버지의 면모를 유감 없이 보여줬다.

특히 이 프로그램 2회 때 조민기는 딸 조윤경을 위해 모닝커피를 만들어주는 등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을 공개해 시청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조윤경은 “커피를 달게 타달라”고 부탁했고, 조민기는 딸의 주문대로 달콤한 모닝커피를 만들었다. 또 조민기는 과거 집필한 책을 꺼내 딸과 추억을 회상했다.

당시 방송 영상이 회자되자 현재 시청자들은 “딸이 아빠 소식에 얼마나 놀랐을까” “사람의 속은 알 수 없는 거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승륜 기자』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500&key=20180220.99099007806>>

(서울신문)= 『‘조민기 성추행 의혹’ 딸 조윤경 등 가족들 피해...네티즌이 SNS에 남긴 글

입력: 2018-02-20 13:35 수정: 2018-02-20 13:35

배우 조민기가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애먼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20일 배우 조민기(54)가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교수직으로 있던 청주대학교에서 사임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 배우 조민기 가족

이날 청주대학교 측은 다수 매체에 “지난해 11월 말 조민기 교수를 두고 문제가 불거져 학생처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중징계로 면직 처분될 예정”이라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조민기 소속사 월엔터테인먼트 측은 “성추행 관련 내용은 명백한 루머”라며 “교수직 박탈 및 성추행으로 인한 중징계 역시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소속사와 학교 측이 엇갈린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조민기의 가족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앞서 조민기는 SBS ‘아빠를 부탁해’에 딸과 함께 출연, 가족들을 공개한 바 있다.



▲ 조윤경 인스타그램

이날 일부 네티즌은 조민기의 아내인 메이크업아티스트 겸 교수 김선진과 그의 딸 조윤경의 SNS에 진실을 요구하는 글을 남겼다.

네티즌은 조윤경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얼굴 다 알려졌는데 (누구) 때문에 성추행 실검에 나오네...”, “아빠가 학교에서 여학생 성추행한 거 사실이에요?”, “아빠가 그런 거 알고 있었어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조민기 아내 김선진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역시 “남편분 의혹 사실인가요?”, “당신 딸은 귀하고 남의 딸은 노리게 합니까”, “어린 피해자 생각해보세요”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 김선진 인스타그램

김선진은 한 네티즌이 의혹이 사실인지에 대해 묻자 “그럴리가요”라는 답변을 달기도 했다.

정작 당사자인 조민기는 현재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를 모두 탈퇴한 상태다.

한편 이날 보도에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익명의 작성자가 쓴 ‘조민기 성추행 폭로’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글쓴이는 “청주대학교에서 연극학과 교수였던 연예인이 몇 년 동안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본교에서 조사가 진행됐고, 그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교수직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조민기의 이니셜을 공개하기도 했다.

사진=조윤경 인스타그램

연예팀 seoulen@seoul.co.kr」

<[http://en.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220500062&wlog\\_tag3=dum#csidxe25f85bb6430872b6c6cacc43599a43](http://en.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220500062&wlog_tag3=dum#csidxe25f85bb6430872b6c6cacc43599a43)>

(서울경제)= 『조민기 화기애애 가족사진 ‘딸이랑 판박이’...교수직 사임 이유가? “몇 년간 여학생 성추행” 논란↑

박재영 기자 2018-02-20 12:17:50



조민기 화기애애 가족사진 ‘딸이랑 판박이’...교수직 사임 이유가? “몇 년간 여학생 성추행” 논란↑

조민기 가족사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과거 5일 조민기의 딸 조윤경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동생 조경현을 군대에 보

내며 함께 찍은 가족사진을 공개했다.

올라온 사진 속 조민기 가족들은 밝은 미소로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조민기의 아들 조경현의 짧게 자른 머리카락과 아빠를 똑 닮은 조윤경의 모습이 이목을 끈다.

한편, 배우 조민기가 성추행 의혹으로 교수직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민기가 “몇 년간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됐다. [사진=조윤경 sns 캡처]

/서경스타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http://www.sedaily.com/NewsView/1RVS0IWVG5>>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제자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배우 조민기씨의 가족이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그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

네티즌이 부인 김모씨와 딸의 SNS 계정에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나”고 진실을 요구하는 댓글을 남기자 김씨는 “그럴리가요”라는 답글을 남긴 뒤 이내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는 조민기씨의 얼굴사진을 실었으나, 주목도가 높은 뉴스스탠드에는 기사에 없던 부인 김씨의 사진을 게재했다. 더구나 2월 26일에는 비교적 작게 실었다가 이틀 뒤에는 사진을 훨씬 더 키웠다.

조씨는 지난해 한 TV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딸 조윤정 양과 부인을 공개한 바 있다. 부인은 이번 성추행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기사에서도 “가족이 애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동정론을 폈음에도 부인의 얼굴을 실은 것은 모순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부인의 직업은 메이크업아티스트로, 공인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롭지 않은 사건에 얼굴을 공개한 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측면이 있다.

국민일보는 이어 배우 조민기씨의 가족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그 사연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이미 알려진 사실만을 나열하며 다른 기사를 작성한 뒤 부인과 딸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외형적으로는 동정론을 펴고 있지만 이를 부연하는 내용은 거의 볼 수 없어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사고 있다. 스포츠서울의 기사는 국민일보의 보도내용과 거의 같다.

이밖에 전자신문 등은 딸과 함께 출연, 다정한 모습을 보였던 조씨의 과거 방송화면을 내보내면서 딸과 비슷한 또래의 여학생을 성희롱한 조씨의 이중성을 꼬집은 내용을 다뤘다. 서울신문은 가족이 SNS상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부인과 딸의 인스타그램 사진과 가족사진까지 올리기도 하였다.

조씨의 가족은 이번 성추행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이다. 따라서 가족의 얼굴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2차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조씨의 가족이 과거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하더라도, 성추행 사건에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하는 것은 당초 출연 목적에서 벗어난 것으로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②(성범죄와 무관한 가족보호), 제12조 「사생활 보호」 ③(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3월 14일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

위원장	김 용 담	김용담
위원	정 승 호	정승호
	장 명 국	장명국
	박 재 현	박재현
	장 인 철	장인철
	김 규 식	김규식
	강 희	강희
	하 윤 수	하윤수
	김 영 모	김영모

박 미 경 *미경*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②(성범죄와 무관한 가족보호) 기자나 편집자는 성범죄를 보도하는 경우 무관한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제12조 「사생활보호」 ③(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 금지)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 사유물, 개인에 속한 기타 목적물을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